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의 성경 주해 저술들과 알레고리의 성격

조재천*

1. 들어가는 말

제 2 성전기에 활약했던 유대인들 중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만큼 성경, 즉 구약성경에 대해 광범위한 저술을 남긴 이는 없다. 필로를 스토아주의와 중기 플라톤주의에 심취하여 자신의 유대적 정체성을 헬레니즘화한 철학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 계시된 유일신 신앙을 철학적, 수사적 언어로 풀어낸 주석가로 볼 것인지에 관한 오래된 논쟁은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¹⁾ 그러한 논쟁 자체가 성경 해석이 어떻게 필로의 사상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성경 해석이 필로 사상의 근간을 이룬다는 사실은 필로가 남긴 저술의 성경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칠십 편이 넘는 필로의 저술 가운데 약 3분의 2가량이 전해지는데, 그 중에서 호교론적 주제를 다룬 여덟 편을 제외한²⁾ 서른

*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신약학

1)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자들에 대해서는 보겐(P. Borgen), *Philo of Alexandria: An Exegete of His Time* (Leiden: Brill, 1997), 1-13을 참조할 것. Y. Amir,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 in the Writing of Philo," *Mikra: Text, Translation,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Hebrew Bible in Ancient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Mulder, M. J. and H. Sysling, eds., CRINT II.1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421은 필로에 대한 이러한 양분된 이해가 19세기 이래 계속되어 왔지만, 그 둘이 종합될 수 있다고 본다.

일곱 편의 저작이 성경 주해라는 카테고리에 속한다. 이는 다시 크게 세 개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문답식으로 된 해제로서 창세기 2장 4절~28장 9절을 다룬 『창세기에 관한 질의와 응답』과 출애굽기 12장 2절~28장 24절을 다룬 『출애굽기에 관한 질의와 응답』이다. 두 번째 그룹은 ‘알레고리적 주석들’이고, 세 번째로는 ‘율법 해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군의 저작들이다.³⁾ 필자는 본고에서 먼저 이들 세 부류의 성경 해석 저술들이 가지는 특징과 실례들을 서술하고, 다음으로 필로의 알레고리적 방법의 본질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2. 필로의 성경 해석 저작들

2.1. 『질의와 응답』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한 『질의와 응답』은 그리스어로 된 사본은 대부분 소실되었고 6세기에 번역된 아르메니아어 사본들만이 전해지며, 그나마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 절반 정도이다(각 6권 중 창세기는 4권, 출애굽기는 2권). 문답식의 주석은 본래 그리스 철학 저술들에서 유래한 것으로 제2성전기의 몇몇 유대인 저자들이 사용하기도 했지만,

-
- 2) 필로의 저작에 대한 대체적인 분류와 각각에 속하는 저작들의 목록은 조재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연재를 시작하며,” 『성서마당』 105 (2013), 87-99에 나와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필로 저작의 우리말 제목들도 앞의 논문에서 근거한다. 필로의 생애와 저술, 사상에 대한 우리말로 된 소개서는 케네스 썩크, 『필론입문』, 송혜경 역 (서울: 바오로 딸, 2008)이 있다.
- 3) 필로의 성경 해석에 대한 최근의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Folker Siegert, “Early Jewish Interpretation in a Hellenistic Style,” *Hebrew Bible/Old Testament: The History of Its Interpretation*, 1, Part I, Magne Sæbø, e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162-188; Adam Kamesar, “Biblical Interpretation in Philo,” *The Cambridge Companion to Phil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65-91.

성경 본문에 대한 순차적 주석에 이를 도입한 것은 필로가 처음이었다. 필로의 주석은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그 기본적인 형식은 “왜?”(διὰ τί) 또는 “무엇인가?”(τί ἐστίν)라고 묻는 것이다. 질문 속에는 성경 본문이 직접 인용되어 제시되는데, 물음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경 본문 자체의 문학적, 문자적 의미에 관한 것이다. 또 하나의 질문의 초점은 성경 본문 자체의 의미보다도, 그 속에 담겨진 어떤 철학적 주제에 관한 것이 된다. 질문의 재료가 되는 성경 본문 외에 2차적 본문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드물게 나타난다. 대답은 문자적 수준에서 그리고 나면 비유적 또는 알레고리적 차원에서 만들어진다. 마치 오늘날의 학문적 주석들에서처럼 필로는 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써 몇 가지의 옵션을 제시한다. 물론 그의 대답들에는 종종 다른 성경 본문들을 근거로 사용하지만, 이를 이차적 본문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약 10퍼센트 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그것들에 대한 본격적인 주해를 펼치지 않는 것이다.

『질의와 응답』에서 필로가 시도하는 성경 해석의 실례를 하나 살펴 보자.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 하반절의 “정녕 죽으리라”라는 구절이다. 히브리어로는 “מָוֹת תָּמוּת”인 이 구절이 그리스어 역본으로는 “νεώτατος θανάτω ἀποθανείσθε”로 되어 있다. 즉, 히브리어 동사 구문인 ‘절대부정사’의 용법을 살려 의역하지 않고, 문자적, 형식 일치적으로 번역한 것이다. 히브리서를 충실히 번역했다라면 “죽다”라는 동사를 강조하는 의미가 되어야 했겠지만, 문자적 번역을 하다 보니 “죽다”의 한정적 시제(미완료)에다가 “죽음으로써”라는 (동)명사적 형태가 더해진 문장이 나왔다. 그리스어 문장만을 가지고 본다면 필로의 의문은 당연한 것이었다: “너는 죽음으로써 죽을 것이다의 의미는 무엇인가?”⁴⁾ 이에

4) 필로가 얼마나 유창하게 히브리어를 구사했는지, 그리고 저술 과정에서 히브리어 본문을 얼마나 참고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문제로 남아 있다. 울프슨[H. A. Wolfson, *Philo: Foundations of Religious Philosophy in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47), 1.88]은 “[필로의] 히브리어는 매우 유창해서 언제나 쉽게 자신의 고유한 번역을 해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확신하지

대해 필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훌륭한 사람에게 있어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다. 삶은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썩을 몸과 함께 하는 삶이 있는 반면, 몸과 상관없는 또 다른 삶, 즉 불멸하는 삶이 있다. 그런데 약한 사람은 죽음으로써 죽게 된다. 심지어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도, 아직 땅에 묻히기 전에도, 그는 참된 삶의 어떠한 불빛도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은 죽음으로써 죽지 않는다. 오래도록 살다가 영원 속으로 들어가 영원한 삶으로 옮겨진다.⁵⁾

즉,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신체적 죽음 이전에, 그와 무관하게 철학적, 영적 죽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육체가 죽을 때, 그 죽음으로써 영원히 죽게 된다. 이것이 필로가 이해한 창세기 2장 17절의 의미였다. 히브리어의 독특한 동사 구문을 그리스어로 직역하는 과정에서 낯선 의미가 생겨났고, 필로는 그것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필로의 성경 해석 중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만, 정작 자신의 저술에서 필로가 히브리어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샌드멜(S. Sandmel, "Philo's Knowledge of Hebrew: The Present State of Problem," *Studia Philonica* 5 (1978), 107-111]과 아미르("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 in the Writing of Philo," 444)가 제시하듯, 필로의 히브리어 지식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필로가 그리스어 본문과 함께 히브리어 본문을 참조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필로는 칠십인경을 히브리어 본문에 버금가는,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는 신적 영감이 어려 있는 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굳이 히브리어 본문을 비교, 대조하기보다는 그리스어 본문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칠십인경의 형성과 그 성격에 대한 필로의 묘사(『모세의 생애』, 2.26-44)는 이러한 결론을 지지해준다.

- 5) 『창세기에 관한 질의와 응답』, 1.16. 아래 모든 필로 저작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필자의 사역(私譯)이다(『세상의 창조』 제외, 아래 각주 21 참조). 표준 비평본은 L. Cohn의 3인 공편, *Philonis Alexandrini opera quae supersunt* (총 7권; Berlin: Reimer, 1896-1930; 2nd ed., Berlin: Gruyter, 1962). 본 논문에서는 로옴판(Loeb Classical Library)을 사용하였다.

『질 의와 응 답』은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성경 본문을 차례차례 해설해 가면서 질문에 대해 비교적 간략한 대답 들을 제공한다. 또한 한 가지 답만이 아니라 대답의 가능성들을 제시하 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초심자들에게 적합한 방식이다. 필로 자신이 몸담고 있던 학교에서 비교적 초급의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성경 해석을 저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2. ‘알레고리적 주석’

필로의 성경 해석으로부터 나온 두 번째 그룹의 저작들은 “알레고리 적 주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명칭 자체는 필로 자신에게서 유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에우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가 처음 사용한 이래로 일종의 전통으로 굳어졌다.⁶⁾ 여기에는 총 20권의 저작이 포함되 며 거기에 소실된 12개를 합하면 필로의 ‘알레고리적 주석’은 총 32권 이나 된다. 이 32권은 즉흥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리즈, 즉 하나의 체계를 가진 총서로 쓰였다. 이렇게 보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선 거의 대부분의 주석들이 하나의 성경 본문에 집중하 고 있는 점이다. 즉, 『꿈』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알레고리적 주석’들은 창세기 2:1-17:22를 차례대로 주해하고 있다.⁸⁾ 두 번째는 적어도 여섯

6) Eusebius, *Hist. eccl.* 2.18.1; 단, ‘알레고리적 주석’이라는 카테고리의 명칭과 필로 저작 가운데 하나인 『우의적 율법』(*Legum allegoriae*)을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본고에서는 전자가 저술 제목이 아닌 카테고리의 명칭임을 나타내기 위해 작은 따옴표를 사용했다.

7) 『우의적 율법』, 1, 3, 『케루빴』, 『아벨과 가인의 제사』, 『악인이 선인을 공격한다』, 『가인의 추방과 그의 후손』, 『거인』, 『하나님의 불변성』, 『농사』, 『농부노아의 포도재배』, 『술에 취하는 것』, 『맑은 정신』, 『언어의 혼란』, 『아브라함의 이주』, 『누가 신적인 것들의 상속자인가』, 『예비 학습과의 합치』, 『도주와 발견』, 『이름의 변경』, 『꿈』, 1, 2.

8) 『꿈』 두 권은 각각 창세기 27:12-15와 37:7-10을 본문으로 한다. 나머지 18권이

개의 저술에서 이른바 ‘이차적 서문’들이 발견된다.⁹⁾ 예를 들어 『농부노아의 포도재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이전 책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농업 기술들에 관해 논하면, 적어도 무엇이 적절한지를 다루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특히 포도를 재배하는 기술에 관해서 설명할 것이다.”¹⁰⁾ 필로는 이 책들을 쓰면서 각 권의 내용이 하나의 큰 주제로써 서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알레고리적 주석’을 진행하였을까? 기본적인 방식은 이른바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방식이다. 일단 일차 램마(lemma; 주해하고자 하는 성경 본문)를 제시한다. 이는 『질의와 응답』과 마찬가지로이다. 하지만 ‘알레고리적 주석’에서는 램마에 따른 주석이 훨씬 길고 복잡하다. 예를 들어, 『농사』, 『농부노아의 포도재배』, 그리고 『술에 취하는 것』에서 창세기 9장 20절 상반절, 9장 20절 하반절, 그리고 9장 21절이 각각 램마로 제시되면서 하나의 단어나 구를 해설하고 이어서 다음 단어나 구를 해설해 간다. 그런데 각 단어나 구를 해설하는 데 있어서 이차, 혹은 삼차적인 램마들을 제시한다. 이차 램마들을 제시하는 방식은 『질의와 응답』에서도 볼 수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물고 간략하다. 반면 ‘알레고리적 주석’에서는 부차적인 램마들을 통한 주석이 거의 항상 등장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필로가 부차적인 램마들을 일차 램마와 연결시키는 방식은 단어유희(wordplay), 또는 일정한 주제로 묶어내는 방식이었다.¹¹⁾ 예를 들어

다루고 있는 본문에 대해서는 샌드멜(S. Sandmel), 『유대의 종교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박영희 옮김 (서울: 엠마오, 1989), 111-112를 참조할 것.

9) 『농부노아의 포도재배』, 1; 『술에 취하는 것』, 1; 『맑은 정신』, 1; 『누가 신적인 것들의 상속자인가』, 1; 『도주와 발견』, 1; 『꿈』, 1.1; 스티어링[G. E. Sterling, “The Interpreter of Moses: Philo of Alexandria and the Biblical Text” *A Compan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in Early Judaism*, M. Henze ed. (Grand Rapids: Eerdmans, 2012), 419]은 이러한 이차적 서문들이 에포루스(Ephorus, FGrH 70), 디오두루스 시쿨루스(Diodorus Siculus), 그리고 요세푸스(Josephus, Ant. 8.11; 13.1; 14.1; 15.1; 20.1)와 같은 헬레니즘 유대 역사가들에게서도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10) 『농부노아의 포도재배』, 1.

『맑은 정신』의 일차 램마는 창세기 9장 24절이다. “노이는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더 어린 아들(νεώτερον υἱόν=함)이 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았다.” 먼저 “깨어나다”에 대해 해설하고(§1-5), 그 다음에는 “더 어린 아들”(§6-29)에 대해서 길게 논하는데, 여기에서 그는 여러 이차 램마들을 도입한다. 필로는 어리다는 것이 물리적 나이에서가 아닌, 인격에서 어림을 가리킨다고 이해했다(§6). 나이는 어리지만 인격은 어리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나이는 많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는 어린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필로는 성경에서 그 예를 찾고 있다(§7-15).

예를 들어 이스마엘은 이삭과 비교할 때 덕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παῖδιον)이며, 이스라엘의 “자손들” 즉 “아이들”(τέκνα)도 마찬가지였다(신 32:4-6; §10-11). 라헬은 레아보다 신체적으로 더 보기 좋은 젊은 여인(νεώτερα)이었지만, 영혼의 아름다움은 레아에게 미치지 못했다(§12). 요셉의 경우는 그 형제들보다 육체의 힘에 있어서 강력했기 때문에 “젊고”(νεός [창 37:2]), “가장 어린”(νεώτατος [창 49:22]) 자로 불렸다(§13-15). 반대로, 나이가 들었어도 우월함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16-20). 이들에게는 ‘장로’(πρεσβύτερος)라는 영예로운 호칭이 붙여지는데, 아브라함은 비록 그의 조상들보다 수명이 짧았지만 더 현명했기에 조상들 중 아무도 받지 못했던 ‘장로’ 호칭을 받았다(창 24:1; §17-18). 칠십인의 장로들도 “거룩한 신비의 입문자들”(ιεροφάντας)로서 “영혼의 이성적 부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한”(ἐπιφροσυνή ... τὸ λογικὸν τῆς ψυχῆς μέρος) 까닭에 ‘장로들’이라 불리

11) 루니아[D. T. Runia, “The Structure of Philo’s Allegorical Treatises: A Review of Two Recent Studies and Some Additional Comments,” *Vigiliae Christianae* 38 (1984), 239-240]은 이 두 가지를 일차 램마에서 이차 램마로의 “전환 방식”(mode of transition)이라고 설명한다. 즉, 언어적 전환 방식(verbal mode of transition)은 단어나 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은 주제적 전환 방식(thematic mode of transition)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다. 단 그 역, 즉 주제적 전환 방식이 항상 언어적 일치를 이끌어내지는 않는다. 루니아는 필로가 언어적 전환 방식을 매우 자주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었다(민 11:16; §19-20).

필로는 “더 어린 아들”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서 왜 장자가 우대를 받아야 하는지를 논한다(§21-29). 신명기 21장 15-17절에 따르면 사랑 받는 아내와 미움 받는 아내가 각각 아들을 낳았을 때, 미움 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πρωτότοκος)의 권한을¹²⁾ 차지한다. 즉, 장자는 물리적 나이가 가장 많은 아들을 일컫는 용어가 아닌 것이다. 심지어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더라도 미움 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가 된다(§22). 왜냐하면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은 나이는 더 많을지라도 “바른 이성에 따라”(παρ’ ὀρθῷ λόγῳ) 더 어리다고 판단받기 때문이며, 사랑받는 아내는 쾌락(ἡδονή)을, 미움 받는 아내는 현명함(φρονήσις)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 야곱은 비록 나이는 더 어렸지만 능력에 있어서는 에서보다 더 연장자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요셉의 두 아들 중 더 큰 복을 받은 에브라임도 덕에 있어서 자기 형 므낫세보다 더 성숙했었다(창 38:13-14; §27-29). 필로에 따르면 이들 두 사람의 이름은 각각의 진정한 면모를 드러내준다. 므낫세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회상”(ἀνάμνησις)이라는 의미이고 에브라임은 “열매를 맺음”(καρποφορία)을 뜻한다. 여기서 열매는 잊히지 않은 진리, 즉 기억된 진리를 말하여 이것이 영혼의 참 양식이 된다. 따라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기억”(μνήσις)을 상징하게 되고, 이는 므낫세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회상”과 대조를 이룬다. 회상은 망각을 전제로 하며, 망각으로부터 도출되므로, 기억보다 열등하다. 기억은 성인의 속성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어리지만, 더 연장자로 여겨져야 하는 것이다. 결국 필로가 “어림”과 “나이들”의 대조를 해석하는 방식의 이면에는 도덕적 이원론이 자리잡고 있다.

필로는 ‘알레고리적 주석’에서 『질 의와 응답』에서와는 달리 복잡하고 장황한 비유적이고 우의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성경 해석을

12) 즉, 유산 분배에서 장자가 다른 아들들보다 두 배를 받게 되어 있다.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독자는 아마도 필로의 학교에서 상당히 고급 수준에 이른 학생들이거나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2.3. '율법 해설'

필로의 성경 해석 중 세 번째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율법 해설'로서 총 15권의 저작 중 12권이 현존하고 있다.¹³⁾ 『질의와 응답』과 '알레고리적 주석'이 오경 중에서도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율법 해설'들은 오경 전체를 다루고 있다. 성경 주석가인 필로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 즉 예언서나 시가서보다도 모세 오경에 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은 명백하다. 필로가 모세의 다섯 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세 군데 정도가 있다.¹⁴⁾ 이를 종합해 보면, 결국 창조 이야기, 역사적인 기록, 그리고 법률 조항들 이렇게 세 요소가 율법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필로의 견해이다.¹⁵⁾ 그 중에서 앞의 두 요소, 즉 창조 기사나 족장들을 비롯한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집중되어 있고, 법률적인 논의는 출애굽기에서 시작하여 오경의 나머지 세 책에 집중되어 있는데, 필로는 창조와 역사 뿐만 아니라 '율법 해설'에서 법률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3) 『모세의 생애』 1-2권, 『세상의 창조』, 『아브라함』, 『요셉』, 『십계명』, 『세부규정』, 1-4권, 『딤텔』, 『상급과 처벌』; 소실된 세 권은 『이삭』, 『야곱』, 『정염』이다. (『요셉』 1과 『우의적 율법』, 3.139 참조).

14) 『아브라함』, 2-5; 『모세의 생애』, 2.45-47; 『상급과 처벌』, 1-3.

15) 특히 『상급과 처벌』, 1-3에서는 율법에 대한 이러한 삼분적(tripartite) 구성에 대해 필로가 보다 온전하고 발전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예언자 모세를 통해 전해진 신탁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세상의 창조 이야기(τὴν περὶ κοσμοποιίας), 둘째는 역사(τὴν ἱστορικὴν), 셋째는 율법의 제정(τὴν νομοθετικὴν)이다.”

법률 조항들 중에서 한 부분은 일반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다른 부분은 특수한 주제들을 다룬다...한편으로 열 개의 요지들(κεφάλαια δέκα)은 해석자(ἐρμηνέως)를 통하지 않고 높은 공중에서 형성된 분명한 언어들(ἐν τῷ ὑψώματι τοῦ ἀέρος σχηματιζόμενα καὶ ἄρθρωσιν ἔχοντα λογικήν) 전달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특수한 법률들은 예언자를 통해 전달되었다.¹⁶⁾

전자는 십계명을 말하며 이는 그의 책 『십계명』에서 자세하게 해설한다. 후자는 그 외의 개별 법률 조항들을 말하는데, 이것들을 다루기 위해 필로는 『세부규정』이라는 별도의 책을 썼다. 이 외에도 “[모세가] 평화와 전쟁에 할당했던 덕목들”을 논하고 있는 『덕』, 그리고 “선에 대한 상급과 악에 대한 처벌”을 다루는 『상급과 처벌』까지 필로는 ‘율법 해설’의 항목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른 두 부류의 성경 해석처럼 창조 기사를 다루는 『세상의 창조』와 족장들의 역사를 다루는 『아브라함』과 『요셉』까지 ‘율법 해설’의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다. 결국 필로의 ‘율법 해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석 작업을 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율법 해설’ 속에 포함시키기 다소 어색한 작품은 『모세의 생애』이다. 이 저작의 내용이나 기술 방식은 엄밀히 말해서 다른 저작들과 다르다. 하지만 ‘율법 해설’의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문을 포함하고 있는 점, 그리고 ‘율법 해설’에 속하는 두 저술에서 『모세의 생애』를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관련성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젤용(A. C. Geljon)은 『모세의 생애』가 ‘율법 해설’의 서문으로서 일종의 철학적 전기(philosophical biography)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¹⁷⁾

그렇다면 ‘율법 해설’에서 성경 해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 앞서 살펴본 『질의와 응답』이나 ‘알레고리적 주석’과는 달리 ‘율법

16) 『상급과 처벌』, 2.

17) Albert C. Geljon, *Philonic Exegesis in Gregory of Nyssa's De vita Moysis* (Providence: Brown Judaic Studies, 2002), 7-46.

해설'에서 필로는 성경 램마, 즉 주해의 대상이 되는 구절들을 거의 인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세상의 창조』 전체를 통틀어 필로가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는 여섯 번 밖에 되지 않는다.¹⁸⁾ 의역을 해서 제시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 주해의 내용 속에 성경 본문 속의 단어나 표현들을 적절히 섞어 넣는 방식을 취한다.¹⁹⁾ 필로가 본문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식은 우선 내용을 요약한 다음 그 요약에 대해 해설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서 필로는 먼저 아브라함이 부름 받고 그에 따르는 사건을 §60-67에서 요약적으로 묘사한 다음 그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을 §68-88에서 제시한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사라를 두로 바로와 얽히게 된 사건을 요약한 다음(§89-98), 그것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 (§99-106). 필로가 성경 본문을 자기 나름으로 다시 풀어쓰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의 유대 문헌들 중 이른 바 “다시 쓰인 성서”(Rewritten Bible)라는 장르와²⁰⁾ 유사한 면도 있지만, 중대한 차이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은 필로가 단지 성경을 다시 풀어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비유적이며 우의적인 차원에서 주석을 더하고 있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필로의 ‘율법 해설’들은 그의 다른 성경 해석 저작들과는 달리 성경을 직접 인용하는 대신 다시 풀어쓰고 동시에 거기에 자기 나름

18) 『세상의 창조』, 26에서 창세기 1:1; 『세상의 창조』, 32에서 창세기 1:2; 『세상의 창조』, 72에서 창세기 1:26; 『세상의 창조』, 129에서 창세기 2:4-5; 『세상의 창조』 131, 133에서 창세기 2:6; 그리고 『세상의 창조』, 134-135, 139에서 창세기 2:7 등이다.

19)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루니아(David T. Runia), *Philo of Alexandria, On the Creation of the Cosmos according to Moses: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Commentary* (Leiden: Brill, 2001), 1017 참조.

20) 『회년서』, 『창세기외경』(Genesis Apocryphon), 위-필로(Pseudo-Philo)의 *Library of Biblical Antiquities* 등이 이 장르에 해당한다. 이 장르에 관한 최근 논의로 M. J. Bernstein, “Rewritten Bible: A Generic Category Which Has Outlived its Usefulness?” *Textus* 22 (2005), 169-196 참조. 또한 천사무엘, “필로의 위서에 나타난 성서해석,” 『구약논단』 6 (1999), 203-228 참조. 필로의 ‘율법 해설’을 ‘다시 쓰인 성서’로 보는 대표적인 연구자는 보겐(*Philo of Alexandria*, 46-79)이다.

의 주석적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성경 해석은 『질의와 응답』이나 ‘알레고리적 주석’과는 다르기 때문에 ‘율법 해설’이 엄두에 두고 있는 독자들보다 그러한 저작들보다는 더 넓은 층, 즉 전체 유대인 공동체이거나 심지어 어느 누구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을 향해 쓰였을 수도 있다.

3. 필로의 알레고리적 방법

3.1. 알레고리의 정당성

알레고리(ἀλληγορεύειν)는 본래 “다른 무언가를 말함”(ἀλλὰ ἀγορεύειν), 즉 모든 사람에게 감지될 수 있는 의미 너머의 다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필로가 알레고리를 주요한 성경 해석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 데는 그의 사상 세계(thought-world), 즉 스토아주의와 플라톤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철학적 세계관에 기인한다.²¹⁾ 절대적인 하나님에게 도달하여 그분에 관해 알기 위해서는 감각의 세계를 벗어나 이데아의 세계, 그리고 그 이상의 세계에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의 문자적 의미는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너머의 의미를 추구해야 한다.

필로가 알레고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예언자이자 제사장이며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의 역할이다.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백성에게 전달한 중개인이나 번역자가 아니다. 그 자신이 “철학의 최고 정상에까지 나아갔고, 신적인 계시들을 통해 자연의 가장 많고 중요한 사물들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필로는 모세가 이 세계의 플라톤적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러한 철학적 지식에 따라 기록

21) 필로의 철학적 세계관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는 본인의 줄고 “필로의 철학세계,” 『성서마당』 107 (2013), 86-97를 참조할 것.

했다고 본다.

모세는 되지 않은 것은 가시적인 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음을 인식하였다. 이는 감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모든 것은 과정 중이거나 변화 중이며 결코 동일한 상태로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모세는 따라서 비가시적인 것과 단지 생각된 것에 유사한 성격으로서 영원성을 인정한 반면, 감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것에는 그것에 어울리는 이름인 창세기(되여가는 것, 창조)를 할당하였다. ...따라서 모세는 올바르게 세상의 창조를 기술했으며 대단히 품위 있는 방법으로 이 신적인 것들을 다루었다.²²⁾

모세는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자격과 자질을 갖춘 계시의 매개자로 묘사된다. 모세는 하나님의 신비에 입문한 사제(ιεροφάντος)로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며 즐기치게 우리의 눈에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거룩한 말씀의 감추어진 빛에 이르도록 한다. 그 빛은 입문하지 않은 사람에게는(ἀτελέστοις) 절대로 보이지 않는 굳게 닫힌 사랑스러움인 것이다.”²³⁾ 더 나아가 모세를 “신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언(출 7:1)을 여러 차례 인용하며, 모세의 특별성을 강조하고 있다.²⁴⁾ 성경이 알레고리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저자인 모세가 다른 어떤 인간과는 달리 신적 지혜에 충만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가시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언어가 사용되었지만, 실상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비가시적인 것들이다. 그 모든 계시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그리할 뿐 아니라, 그분의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기록해 준 모세가 철학적, 영적 진리에 통달한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그의 글을 해석하는 데 문자적

22) 『세상의 창조』, 8-12. 우리말 번역은 노태성, 『창조의 철학』 (서울: 다산글방, 2005)을 따랐다.

23) 『꿈』, 1.164.

24) 『아벨과 가인의 제사』, 9; 『악인이 선인을 공격한다』, 39, 161; 『이름의 변경』, 19, 125-129; 『꿈』, 2.189; 『모든 선한 사람은 자유롭다』, 43.

의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3.2. 양 극단에 대한 경계로서의 알레고리적 방법

필로를 알레고리주의자(allegorist)라고만 부르는 것은 사실 정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필로에게 성경 본문의 문자적 의미는 항상 일차적으로, 즉 알레고리에 앞서 주어지며, 전자가 없이 후자만으로 성경이 해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필로에게 그 둘은 분명하게 구별되지만, 또한 성경 해석의 전체 과정을 구성하는 연결된 두 단계로 나타난다. 필로는 문자적 의미가 어디까지이고, 언제 알레고리가 시작하는지를 밝힌다. 따라서 두 해석 모두 정당하며 각자의 역할과 권위를 가진다. 단, 굳이 그 둘을 정적으로 분리하여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즉 궁극적이고 실질적인 유익을 따져 비교한다면 그 결과는 거의 언제나 알레고리에게로 기울 것이다. 성경이 독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독자들의 상황과 현실에 적용되는 의미, 그것은 알레고리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고 필로는 믿었다. 필로는 그의 저술에서 성경 해석의 두 방법론에 대해 논하곤 하는데, 필로가 경계하는 양 극단은 지나친 문자주의와 지나친 상징주의 모두이다.

첫째, 필로는 극단적 알레고리주의자들을 경계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을 떠나라고 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리라”(μεγαλυνῶν τὸ ὄνομά σου). 여기서 이름은 사회에서 한 개인이 지니는 평판을 의미하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도덕적 삶은 자기성찰과 수련에 의해 달성되기 때문에 남의 이목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를 경시한다. 이에 대하여 필로는 “진실이 평판보다 중요하긴 해도 행복은 이 둘 모두에게서 온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어서 지나치게 영적 의미, 즉 알레고리만을 추구하는 해석자들을

향해 이렇게 반박한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문자적 의미를 지성의 영역에 속하는 상징의 빛 아래에서 해석하려고 하고 후자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전자를 손쉽게 경시하곤 한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는 문제를 너무 쉽게 그리고 가볍게 다루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들은 두 목적 모두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더 온전하고 정확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나무랄 것이 없는 칭지기가 될 것이다.²⁵⁾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한 개인에게 가지는 평판과 인정을 어떻게 전부 무시하고 “벌거벗은 절대 진리”(τὴν ἀλήθειαν γυμνήν)만을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안식일, 절기, 할례, 성전 제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제 칠일을 통해 ‘아무에게서도 유래하지 않은 분’의 능력과 피조물의 무능력함을 배워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고, [안식일에도] 불을 피우거나, 경작하거나, 짐을 운반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절기가 영혼의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상징하는 것은 옳으나, 그렇다고 절기 때 집회로 모이는데 게을리 해서 안 된다. 할례를 받음으로 쾌락과 모든 정염을 제거하고 불경한 자만을 잘라냄으로 정신이 그 스스로의 힘으로 잉태하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할례법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우리는 [율법의] 외적 준수가 육체에 해당하고 내적 의미가 영혼에 해당한다고 이해해야 한다...우리가 전자를 잘 지키면 그 상징이 되는 후자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 준수를 게을리 한다고] 우리를 비난하고 고소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²⁶⁾

25) 『아브라함의 이주』, 89.

26) 『아브라함의 이주』, 92-93.

필로가 문자적 의미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것이 신앙적, 영적 지식에 이르게 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문자적 의미를 따라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함께 율법을 준수하는 공동체로부터 배척과 비난을 당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아미르(Y. Amir)는 이러한 필로의 두 가지 이유가 전체적인 필로의 사상에 어울리지 않으며, 단지 이곳에서만 간략하게 나타남으로 결국 필로는 알레고리에 경도되었다고 판단한다.²⁷⁾ 하지만 극단적 알레고리주의자들을 향한 필로의 권고는 어쩌면 그의 저술이 보여주는 것보다 필로의 삶의 진실에 더 가까울 지도 모른다. 그의 저술과 역사적 증거들로 볼 때 필로는 현실에 깊숙이 뿌리박은 철학자요 주석가였다. 필로와 그의 친족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공동체를 섬기는 공적 지위에 있었다. 그 자신이 동족이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여 직접 황제 가이우스를 알현하는 사절단의 수장이 되기도 했다. 필로는 성경 속에 담긴 진리가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성경 해석도 자신의 영적 유익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권면하며 가르칠 목적으로 저술되었다고 한다면 문자적 의미에 뿌리박은 성경 해석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편, 문자적 의미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한 필로의 경계는 그의 저술 전반에 걸쳐 발견된다. 필로는 그들을 “좁은 시민의식을 가진 자들”(μικροπολίται)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더 큰 나라에 소속되어 고차원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대조한다.²⁸⁾ 문자적 의미만으로는 진리를 깨닫는 데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적 추론에 사로잡혀 큰 불경함”(τοσαύτη κατάσχοι τὸν ἀνθρώπινον λογισμὸν

27) Y. Amir,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 in the Writing of Philo,”

446. 아미르는 특히 개인의 덕의 추구와 자족을 강조하는 스토아적 자존심, 그리고 실재와 평판의 날카롭게 인식한 소크라테스적인 예민함에 필로가 노출되었을 터이므로, 여기에서와 같은 현실주의적 태도가 필로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았다.

28) 『꿈』, 1.39; 천사무엘[“알렉산드리아 필로의 성서해석,”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7 (2000), 19-21]은 알레고리적 해석이 필로의 보편주의 사상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ἀσέβεια)을 범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만약 에덴동산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땅을 경작하시고 초목을 심으신 것으로” 착각할지 모른다. “그러한 신화들(μυθοποιία)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²⁹⁾ 분명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행동하지 않으시며, 그럼에도 모세가 때때로 신인동형론적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³⁰⁾ “진리의 지혜에 의해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비진리를 사용해서라도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³¹⁾ 특히 문자적인 의미가 현실과 명백하게 위배될 경우, 알레고리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예를 들어 『꿈』, 2.246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할 때(“강한 강물의 흐름이 하나님의 도성을 즐겁게 한다”), 이 말씀이 지리적 현실과 위배됨을 지적한다. 예루살렘 근처에는 호수가 강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문자적 예루살렘을 가리키지 않는다. “따라서 [모세는] 어떤 뻔한 것과는 다른 것을 알레고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쓴 것이다. 강물의 흐름은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로고스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을 맛보게 되는 전 피조 세계가 곧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필로는 파악한다. 더 나아가 현자의 이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레위기 26장 12절에 “내가 네 안에서 걸으며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³²⁾

결론적으로 필로는 성경이 가지는 이중적 의미를 충분히 음미하면서 두 극단을 경계하였다. 성경 해석은 늘 문자적 해석에서 출발한다. 문자적 해석만으로도 어느 정도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또한 불충분하다. 문자적 의미에서 멈출 때 진리를 충분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경건의 위험을 안게

29) 『우의적 해석』, 1, 43-44.

30) 『하나님』, 52; 천사무엘, “알렉산드리아 필로의 성서해석,” 21-23.

31) 『하나님』, 64.

32) 필로 저술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여러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는 조광호, “필로의 ‘예루살렘’ 이해,” 『장신논단』 32 (2008), 193-219 참조.

된다. 여기에 알레고리의 정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필로에게 알레고리와 문자적 해석은 육체와 영혼처럼 짝을 이루고 있으며, 서로를 필요로 한다. 단, 마치 그림자 뒤의 물체,³³⁾ 거울에 비친 실제 모습,³⁴⁾ 그리고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처럼³⁵⁾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진리는 알레고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4. 나가는 말

성경 해석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에게 세계를 읽는 사상적 틀이자 신앙의 방식이었다. 특히 모세 오경에 그의 거의 모든 성경 해석 활동이 집중되었다. 필로의 성경 해석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질의와 응답』, ‘알레고리적 주석,’ 그리고 ‘율법 해설.’ 이 세 종류의 성경 해석은 각자의 독특성을 띠고 있으며, 서로 다른 독자층을 겨냥한 듯하다. 묻고 답하는 기본적인 교수법의 형태를 갖춘 『질의와 응답』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지만 요점을 정리하면서 초보 단계의 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알레고리적 주석’에 해당하는 20권의 저작들은 창세기 본문에 대한 비유적이고 우의적인 해석이 주를 이루며 1차 램마에 이은 부차적인 램마들을 적극 활용하여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성경 해석의 면모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율법 해설’은 창세기만이 아닌 오경 전체를 다룬다는 점, 그리고 부차적인 램마들을 제한하는 대신 주어진 본문의 내용을 풀어 이야기해준다든지 문자적 해석을 먼저 제공하고 이어서 알레고리적 해석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구성함으로써, 보다 넓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필로의 성경 해석을 알레고리로만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33) 『아브라함의 이주』, 93.

34) 『관상생활』, 78.

35) 『꿈』, 2.8.

문자적 의미와 알레고리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몸과 영혼처럼 어느 하나를 배제할 수 없으며, 알레고리로 나아가기 전 문자적 의미가 제시되고 음미되어야 하는 것이다. 필로에게 알레고리는 철학적, 신학적 의미,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체라는 신비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도구였다. 알레고리의 정당성은 필로와 그의 독자들을 둘러싼 사상적 배경, 즉 헬레니즘 철학의 핵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아울러 계시의 전달자였던 모세를 최고의 철학자요, 예언자, 제사장로 묘사함으로써 이미 저자의 의도 속에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의 『관상생활』에 묘사된 “치유자들”(θεραπευταί)의 생활에서 성경의 묵상과 강론이 가장 고상하고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로 강조된 것처럼,³⁶⁾ 필로에게 성경 해석은 단지 지적인 유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공동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기 위해 필요한 일이 성경 해석이었다. 필로가 알레고리의 효용성에 한계를 정한 이유도, 그것의 가치를 역설하는 이유도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섬기는 공동체의 유익에 있었다.

<주요어>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알레고리, 성경 해석, 헬레니즘

<Key Words>

Philo of Alexandria, allegory, biblical interpretation, Hellenism

* 접수일 2014년 2월 21일, 수정일 2014년 2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4년 3월 10일

36) “치유자들”에 대한 필로의 묘사와 신비주의에 관해서는 조재천, “필로의 신비주의,” 『성서마당』 108 (2013), 84-96 참조.

참고문헌

- 노태성, 『창조의 철학』, 서울: 다산글방, 2005.
- 사무엘 샌드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유대의 종교 철학자』, 박영희 옮김, 서울: 엠마오, 1989.
- 송혜경, “필론의 작품에 나타난 신비주의: 그 특징과 배경연구,” 『신학전망』 174 (2011), 77-112
- 정규철, “필로의 성경관,” 『신학지남』 70 (2003), 340-362.
- 조광호, “필로의 ‘에루살렘’ 이해,” 『장신논단』 32 (2008), 193-219.
- 조재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연재를 시작하며,” 『성서마당』 105 (2013), 87-99.
- 조재천, “필로의 신비주의,” 『성서마당』 108 (2013), 84-96.
- 천사무엘, “알렉산드리아 필로의 성서해석,”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7 (2000), 7-27.
- 천사무엘, “필로의 위서에 나타난 성서해석,” 『구약논단』 6 (1999), 203-228.
- 케네스 썩크, 『필론입문』, 송혜경 역, 서울: 바오로 딸, 2008.
- Philo, F. H. Colson, et al., trans., *Loeb Classical Library*, 12,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9-1962.
- Amir, Y.,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 in the Writing of Philo,” *Mikra: Text, Translation,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Hebrew Bible in Ancient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Mulder, M. J. and H. Sysling, eds., CRINT II.1,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 Bernstein, M. J., ““Rewritten Bible: A Generic Category Which Has Outlived its Usefulness?” *Textus* 22 (2005), 169-196.
- Borgen, P., *Philo of Alexandria: An Exegete of His Time*, Leiden: Brill, 1997.
- Geljon, Albert C., *Philonic Exegesis in Gregory of Nyssa's De vita Moysis*, Providence: Brown Judaic Studies, 2002.
- Kamesar, Adam, “Biblical Interpretation in Philo,” pages 65-91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Phil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Runia, D. T., *Philo of Alexandria, On the Creation of the Cosmos according to Moses:*

-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Commentary*, Leiden: Brill, 2001.
- Runia, D. T., "The Structure of Philo's Allegorical Treatises: A Review of Two Recent Studies and Some Additional Comments," *Vigiliae Christianae* 38 (1984), 209-256.
- Siegert, Folker, "Early Jewish Interpretation in a Hellenistic Style," pages 162-88 in *Hebrew Bible/Old Testament: The History of Its Interpretation*, 1, Part I, Magne Sæbø, e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 Sandmel, S., "Philo's Knowledge of Hebrew: The Present State of Problem," *Studia Philonica* 5 (1978), 107-111.
- Sterling, G. E., "The Interpreter of Moses: Philo of Alexandria and the Biblical Text," pages 415-33 in *A Compan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in Early Judaism*, M. Henze, ed., Grand Rapids: Eerdmans, 2012.
- Wolfson, H. A., *Philo: Foundations of Religious Philosophy in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2,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47.

<초록>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의 성경 주해 저술들과 알레고리의 성격

조재천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성경 해석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의 사상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모세 오경에 그의 거의 모든 성경 해석 활동이 집중되었다. 필로의 성경 해석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질의와 응답』, ‘알레고리적 주석,’ 그리고 ‘율법 해설.’ 이 세 종류의 성경 해석은 각자의 독특성을 띠고 있으며 서로 다른 독자층을 겨냥한 듯하다. 묻고 답하는 기본적인 교수법의 형태를 갖춘 『질의와 응답』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지만 요점을 정리하면서 초보 단계의 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알레고리적 주석’에 해당하는 20권의 저작들은 창세기 본문에 대한 비유적이고 우의적인 해석이 주를 이루며, 1차 램마에 이은 부차적인 램마들을 적극 활용하여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성경 해석의 면모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율법 해설’은 창세기만이 아닌 오경 전체를 다룬다는 점, 그리고 부차적인 램마들을 제한하는 대신 주어진 본문의 내용을 풀어 이야기해준다든지 문자적 해석을 먼저 제공하고 이어서 알레고리적 해석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구성함으로써, 보다 넓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필로의 성경 해석을 알레고리로만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문자적 의미와 알레고리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몸과 영혼처럼 어느 하나를 배제할 수 없으며, 알레고리로 나아가기 전 문자적 의미가 제시되고 음미되어야 하는 것이다. 필로에게 알레고리는 철학적, 신학적 의미,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라는 신비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도구였다. 알레고리의 정당성은 필로와 그의 독자들을 둘러싼 사상적 배경, 즉 헬레니즘 철학의 핵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아울러 계시의 전달자였던 모세를 최고의 철학자요 예언자, 제사장로 묘사함으로써 이미 저자의 의도 속에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필로에게 성경 해석은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공동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Abstract>

The Nature of Biblical Interpretation of Philo of Alexandria

Prof. Jaechon Cho
(Reformed Theology Seminary of Korea)

Biblical interpretation penetrates the religious and philosophical thoughts of Philo of Alexandria. His biblical interpretation is concentrated on the Pentateuch. Philo's interpretive treatises are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Questions and Answers on Genesis and Exodus, the Allegorical Commentary, and the Exposition of the Law. These three groups represent unique selection of the text interpreted, modes of interpretation, which seem to be designed to suit the needs of specific groups of audience. Questions and Answers covers only parts of Genesis and Exodus, but they are formulated with the basic pedagogical format as well as simple responses. These features would work well with students at the elementary level. Under the Allegorical Commentary we have 20 treatises, most of which deal with the text of Genesis. These writings are structured with four-fold format: the first lemma, basic explication of the text, and secondary lemmas followed by figu-

rative and allegorical meanings. The structure is featured with thorough and wide-ranging treatment of the text and appropriate for the advanced students. Lastly, the Exposition of the Law deals with the entire Pentateuch, and while lacking in secondary lemmas it features retelling of the biblical stories as well as literal and allegorical explications. Thus it might serve the wider audience, probably beyond the Jewish community.

It does no justice to Philo to call him an allegorist. With some exceptions, Philo usually presents both literal and allegorical meanings, and appreciates the value of the former. Allegory is an indispensable tool for reaching the religious, philosophical truth, and can be justified by the thought-world in which Philo and his readers lived and operated. the portrayal of Moses as the supreme philosopher, prophet and priest lends him more support for his use of allegorical methods. For Philo, interpretation of the Bible is always a project for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which he belongs to and wants to serve.